

일주문



세월호 희생자 성금 기부
예산 수석사 주지 지운 스님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위해 5월 20일 2000만 원을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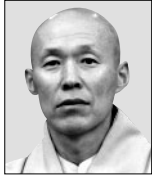
간화선 집중수행 수강생 모집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은 6월 30~7월 6일 열리는 간화선집중수행 수강자를 모집한다. 선착순 80명 참가비 25만원. (02)2260-3891



대전충남파라미타 총재 추대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5월 17일 대전충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로 추대됐다.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책위 활동
조계종 노년위원회 위원장 종호 스님은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회의 산하 존엄과 안전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한다.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서울 문수사 주지 태성 스님은 5월 20일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으로 600만원과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 지원금 10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다.



중앙승가대 발전기금 기부
송광사 서울포교당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내마음 바로보기' 문화강좌
마가 스님은 6월 25일까지 신체계백 화집 서울·경기 지역에 문화강좌 '내마음 바로보기'를 진행한다.

반야로 채원화 원장, 대한민국차인대회대상 수상
교육부문 공로인정... 전통 선차법 해의 시연도



한국 반야로차도문화원 채원화 원장은 TEA EXPO 2014 대한민국 차인대회에서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채 원장은 한국 차도의 기반을 세운 故 효당 최범술 스님의 차법 전수자로 반야로차도문화원을 세워 전통차법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 2006년 한 불교 12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 최초로 문화학생들과 선차도를 시연해 뜨거운 감채를 받기도 했다. 채원화 원장은 "세월호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열린 차인대회이기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국민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우리 차문화 전통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日불교연구 관심 높인 것 보람”

일본불교사연구소 5년 정리
31일 세미나 여는 김호성 교수

“5년 동안의 활동의 성과라면 일본불교를 한국에 알리고 예전과 달리 일본불교를 연구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공도 아니었던 일본불교를 함께 공부해왔던 여러 학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5년간 일본불교 연구의 대표주자로 활동한 일본불교사연구소가 5월 31일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김호성 일본불교사연구소장(동국대 교수)은 5월 22일 “운영위원회를 연 결과 소장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는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불교사연구소가 마지막으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 이후에는 가장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일본불교사연구소는 2009년 5월 창립한 이래 논문집 《일본불교사연구》를 총 10회 펴냈으며 학술세미나도 11회 개최했다. 또 20여명의



일본불교사연구소가 그동안 펴낸 자료집

학자들이 그동안 자신이 연구한 일본불교 논문을 연구소를 통해 발표했다. 또 △일본서적 번역 및 장학사업, 일본불

교 스터디모임 활성화 및 ‘일본불교사 공부방’ 서적 간행 △시민강좌 ‘한일문화교류 아카데미’ 및 ‘일본불교사 강좌기행’ 등을 펼쳐왔다.

김 교수는 “반드시 저희 공덕만은 아니지만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일본불교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장학자들이 많이 배출됐으며 학계에서도 일본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태”라며 “연구소로 끌고 나가 보다는 학자들이 자율적으로 학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일본불교 스터디 모임 및 자료집인 ‘일본불교사 공부방’ 발간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회에도 학자들의 장학 등을 지속적으로 뒤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불교사연구소가 마지막으로 31일 여는 세미나 주제는 ‘일본 조동종 개조 도겐의 선과 청규’다. 이날 발표자로는 △윤창와 민족사 대표가 ‘중국 선종청규와 <영평청규>의 비교고찰’, △강형철 박사가 ‘도겐의 시간론에 대한 불교철학적 고찰’을 △김호성 교수가 ‘효, 출가, 그리고 재가의 딜레마’를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미혼남녀 결혼, 불자들이 앞장서자”

10년간 1500쌍 부부연 맺어준 혜철 스님

“제가 결혼시킨 부부들이 가끔 아이를 데리고 절에 놀러옵니다. 큰아이들이 벌써 7살 정도예요. ‘스님, 애도 크면 장가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저 흐뭇할 뿐입니다.” ‘중매쟁이 스님’으로 유명한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 인터넷 중매카페인 ‘따뜻한 만남’을 운영하고 매달 한 차례씩 ‘인연 맺기 특별법회’를 연다. 이런 활동을 시작한지 10년. 1500쌍의 인연이 맺어졌고, 현재 카페 등록회원은 1만여 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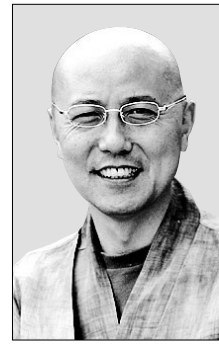
스님이 선남선녀 인연맺기에 뛰어든 것은 2005년이었다. 옥천의 처녀총각을 결혼

시키기 위한 작은 행사를 열면서 부터였다. 스님의 중매는 입소문이 나 도시에서도 찾아오게 됐다. 주말법회에는 100여 명이 넘는 처녀총각들이 대성사를 찾는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 합니다. 부부의 인연이 얼마나 지중하겠습니까”라며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결혼의 행복한 모습을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미혼남녀들이 많은 것일까. 스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혼하면서 팔자를 펴려고 합니다. 상대



가 최고로 예뻐야 하고, 또 직업도 좋아야 한다는거죠. 말이 안되요. 정작 그런 기준에 결혼하면 결혼생활이 행복할까요? 그런 욕심을 버려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스님은 향후 사찰에 조그만 찻집을 마련하고, 그 수익금을 자신이 맺어준 부부들을 돕는데 쓸 예정이다.

스님은 “많은 부부들을 맺어주다보면 이혼하는 커플도 소수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가정까지 돌봐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스님은 “불자들이 부부연을 맺는데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분당 대광사, 5월 18일 명상수련센터 상량식

현대인의 마음 치유를 위해 건립 중인 천태종 분당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 및 지관전 상량식’이 5월 18일 도용 중정 스님, 총무원장 총판 스님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총무원장 총판 스님은 치사를 통해 “전통명상수련센터는 현대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몸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함께 해주는 수행·힐링의 선구적인 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도 개회사

서 “다양한 힐링 시스템을 가동해 지혜와 자비의 길을 안내하는 복합적인 명상 문화 시설로 자리 잡아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량식에는 성남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주혜 스님과 이종훈·전하진 국회의원,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신영수(새누리당), 이재명(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장 후보 등 지지체 단체장과 시구의 원 후보들도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 108돌 ‘동국인 수계대법회’



동국대(총장 김희욱)가 건학108돌을 맞아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은 5월 21일 동국대 본관 앞 팔정도 광장에서 불명과 계를 받는 수계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제2건학 원만성취와 새로운 108년을 출발하는 동국인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 마련됐으며 팔정도 청동여래입상 개보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법회로 의미를 더했다. 수계법회는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을 전계사로 재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 등 65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탄허대종사 갑오년 추모공연



탄허기념박물관(관장 헤거)은 5월 22일 서울 자곡동 기념관 보광명전에서 ‘탄허대종사 갑오년 추모공연’을 열었다. 탄허 스님 열반 31주기를 맞아 열린 공연은 1부에서 금강선원 합창단의 ‘해탈’ 음성공연과 정선화의 출공연, ‘탄허 스님의 노래(최영철 작곡) 초연 등이 이어졌다. 2부 추모공연에서는 판소리와 범용법패, 육법공양에 깃든 우리 소리 등에 대한 헤거 스님의 해설이 이어졌고 채수정 예술단의 판소리 공연이 열렸다. 정혜숙 기자

동국대 경주캠, 노인요양원 봉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 인재개발처 참가팀재능 나눔센터는 5월 17일 경주 불국성림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홍보대사와 한국음악과 학생 등 40명이 노인 전문 요양원인 불국성림원을 찾아 시설 청소와 정리, 말벗 봉사 등의 활동과 한국음악과 학생들의 국악 공연 및 부채춤 공연 등의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태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인재개발처장은 “경주시와 기관 및 산업체, 지역 학생들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나눔 재능 기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국민과 함께 세월호의 아픔을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평화세계법왕 석만청 합장